

---

# 폴라니 사상에 기초한 다원적 경제모델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Karl Polanyi Institute Asia

## 不敢請固所願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다원적 경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 경제 운동”은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선언문)

## 다원적 경제?

“통합의 형태들, 즉 상호성, 재분배, 교환은 경제의 다양한 수준과 상이한 부문에 나란히 발생할 수 있다. 그것들 중 지배적인 것을 꺾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부문과 수준 간에 분화함으로써 그들 형태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경제과정을 기술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경제의 끊임없는 변화에 질서를 부여하게 된다”

(Trade and Market, p250)



### 01 다원적 경제?

#### (강한) 상호성은...

- 1) 타인 고려 선호
- 2) 불공정할 경우 물리적 손해도 불구하고 응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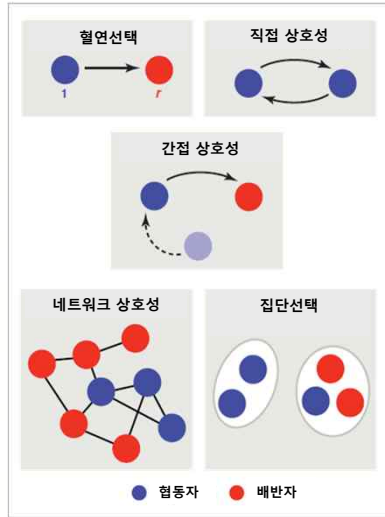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己所不欲 勿施於人”  
(논어 12장)

... 상호성은 협동의 원천



##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



신뢰의 네트워크와 규범이 사회적 자본



\* Nowak, 2006,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보수행렬		협동			
	C	D	ESS	RD	AD	
혈연 선택	$(b-c)(1+r)$	$br-c$	$\frac{b}{c} > \frac{1}{r}$	$\frac{b}{c} > \frac{1}{r}$	$\frac{b}{c} > \frac{1}{r}$	$r \dots$ genetic relatedness
직접 상호성	$(b-c)(1-w)$	$-c$	$\frac{b}{c} > \frac{1}{w}$	$\frac{b}{c} > \frac{2-w}{w}$	$\frac{b}{c} > \frac{3-2w}{w}$	$w \dots$ probability of next round
간접 상호성	$b-c$	$-c(1-q)$	$\frac{b}{c} > \frac{1}{q}$	$\frac{b}{c} > \frac{2-q}{q}$	$\frac{b}{c} > \frac{3-2q}{q}$	$q \dots$ social acquaintance-ship
네트워크 상호성	$b-c$	$H-c$	$\frac{b}{c} > k$	$\frac{b}{c} > k$	$\frac{b}{c} > k$	$k \dots$ number of neighbors
집단 선택	$(b-c)(m+n)$	$(b-c)m-cn$	$\frac{b}{c} > 1 + \frac{n}{m}$	$\frac{b}{c} > 1 + \frac{n}{m}$	$\frac{b}{c} > 1 + \frac{n}{m}$	$n \dots$ group size $m \dots$ number of groups

해밀턴의 법칙  $\frac{b}{c} > \frac{1}{r}$  의 의미

$r$  은 상호성의 강도로 해석할 수 있음

$r$  이 최소화되면 시장 교환이 되며, 이에 따라 익명의 원거리 교역 가능



	인간본성	상호작용 메커니즘	가치	단점
시장경제	이기성 (Homo Economicus)	경쟁 (교환)	효율성	불평등, 생태문제, "시장심성"
공공경제	공공성 (Homo publicus)	재분배	평등 (공정성)	리바이어던, 관료화
사회적 경제	상호성 (Homo reciprocans)	협동	연대	가부장성, 배제성
생태경제	공생 (Homo symbiosus)	공존?	지속가능성	세대 간 정의의 불가능성

만일 하나의 논리로 모든 영역을 구성한다면? "파멸"  
(예. 시장사회, 국가사회주의)

다원성 or 단일성?  
착근성(탈착근성)의 재해석



### 협동의 규칙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원칙	오스트롬, 공유자원 관리의 8가지 규칙	노박, 인간협동의 5가지 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와 공동이용</li> <li>2. 민주적 의사결정</li> <li>3. 참여</li> <li>4. 자율성</li> <li>5. 교육</li> <li>6.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li> <li>7. 공동체에 대한 기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의 확정</li> <li>2. 참여를 통한 규칙 제정</li> <li>3. 규칙에 대한 동의</li> <li>4. 감사와 제재</li> <li>5. 점증하는 제재</li> <li>6. 갈등해결 메커니즘</li> <li>7. 당국의 규칙 인정</li> <li>8. 더 넓은 거버넌스 존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혈연선택</li> <li>2. 직접 상호성</li> <li>3. 간접 상호성</li> <li>4. 네트워크 상호성</li> <li>5. 집단선택</li> </ol>
	<p>*이후 협동을 촉진하는 미시상환변수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소통</li> <li>2. 평판</li> <li>3. 한계수익 제고</li> <li>4. 진입 또는 퇴장 가능</li> <li>5. 장기적 시야</li> </ol>	<p>*이후 행동/실험경제학과 진화생물학이 찾아낸 협동촉진 변수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주주의적 소통</li> <li>2. 집단정체성</li> <li>3. 사회규범의 내면화</li> </ol>

이들 원칙은 모든 경제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경제에서 특히 그러하다.



원칙에서  
정책으로

### 서울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협동의 규칙	장단점과 정책방향
공유와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와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경제란 공유자원의 생산과 이용</li> <li>• 공유 이익과 비용의 공정한 분담</li> <li>• 토론과 의사소통 참여에 의한 딜레마 극복</li> </ul>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는 혈연선택, 반복거래(직접상호성), 평판(간접상호성)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공간</li> <li>• 집단 정체성의 형성과 제고</li> <li>• 집단 경쟁에 의한 집단 내 협동 촉진</li> <li>• 기술혁신을 위한 개방적 학습시스템(open learning system)의 형성</li> <li>• 자치체 간 규칙의 일관성(시의 정책과 구의 정책)</li> </ul>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공동수립(co-construction)과 공동실천(co-production)은 사회적 경제의 자율성을 전제</li> <li>•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자율성을 전제, 특히 금융</li> </ul>
제도와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적 인센티브 등 공식 제도가 사회의 규범, 특히 도덕 규범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수립 시 반영</li> </ul>



02  
기업의 다원성

기업이론

이론적 자원

- Marx, 생산과정이론
- Coase, Williamson, 거래비용이론
- Jensen & Meckling, 대리인이론
- Hart, Grossman, 불완전계약이론
- Bowles & Gintis, 민주적 기업이론
- Freeman, E, Blair & Stout, 이해당사자이론
- Freeman, R 등, 공유자본주의론
- 행동/실험 경제학



## 기업의 본질

### 팀 생산

- 잉여 극대화를 위한 팀 생산
- 기술적/조직적 목적
- 학습과 혁신의 중요성

### 팀 생산은 사회적 딜레마 문제를 수반

- 분배의 공정성 → 생산의 효율성
-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

- 1) 신고전파경제학(NE): 완전경쟁과 CRS 함수  
(예, 콥더글라스함수)
- 2) 맑스: 자본주의적 착취(← 산업예비군)
- 3) 현대기업이론: 노동자의 노력, 관계 투자(발목잡기 문제), 의사결정 문제



## 노동자의 노력

### Bowles & Gintis

- 노동자의 상호감시가 더 효율적

### Akerlof

- 관대한 임금과 노동규범의 선물교환  
→ 자치의 가능성

### 실험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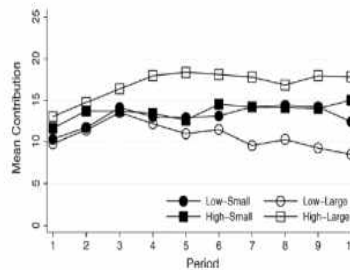


Fig. 2. Mean contribution by treatment and round (Note: low or high refers to the team's  $q/n$  and small or large refers to the team size).

\* Carpenter et al., 2009, p6



## 발목잡기 문제

### Williamson의 근본적 전환과 발목잡기 문제

- 관계 특수 투자 → 과소투자
- Aghion의 예(Aghion et.al., 2011, Hart, 2008)  
= 죄수의 딜레마 상황

		판매자	
		투자	발목잡기
구매자	투자	10, 10	7, 12
	발목잡기	11, 6	8, 8

### Hart & Grossman의 해법은 (투자, 발목잡기)

- (투자, 발목잡기)=19(-7+2) > (발목잡기, 투자)= 17(=11+6)
- Williamson의 수직통합은 (발목잡기, 투자) = 17을 선택
- 협동조합의 선택은 (투자, 투자)=20



## 실험 증거

### 협동조합 해법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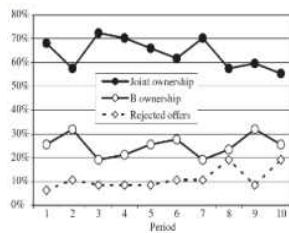


Fig. 1. Share of Ownership Claims (J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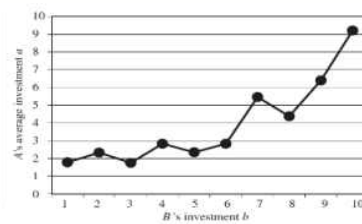


Fig. 2. A's Average Investment Given b Under Joint Ownership (JOD)

\* Fehr et.al, 2008, pp1270-1271

### 공동소유의 선택

- 암묵적 계약을 이행하는 데 공정성은 매우 중요  
상호성의 규범이 존재한다면 공동소유는 효과적



## 의사결정 문제

###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

- 맑스 - 자본가(주주, 경영자)
- 대리인이론 - 주주는 이사회를 통제하고 금융시장은 경영자를 통제  
(효율시장가설 - 지배구조이론에서 형식적 경제학의 핵심)
- 불완전계약이론 -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의사 결정권을 하위조직에 위임



### 이해당사자론과 공유자본주의론

- 모든 이해당사자가 기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이해당사자론)
- 종업원지주제, 이윤공유, 경영참여 제도를 가진 기업이 더 나은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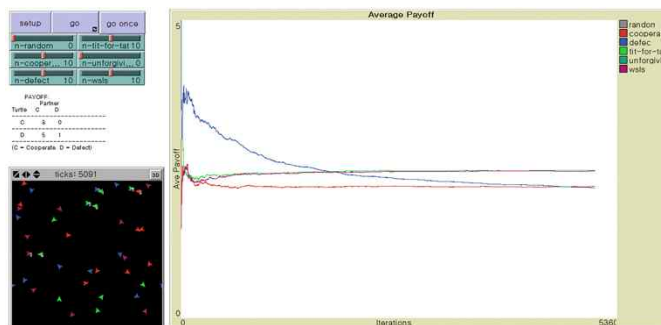
## 왜 협동조합은 희귀한가?

- 맑스, 발라, 밀의 협동조합 찬양
- Ward-Domar-Vanek 협동조합 비판의 오류
- 그런데 왜 희귀한가?

- 1) 대규모 자금 동원 - 사회적 금융
- 2) 우수한 노동자 - 교육 훈련 제도
- 3) 민주주의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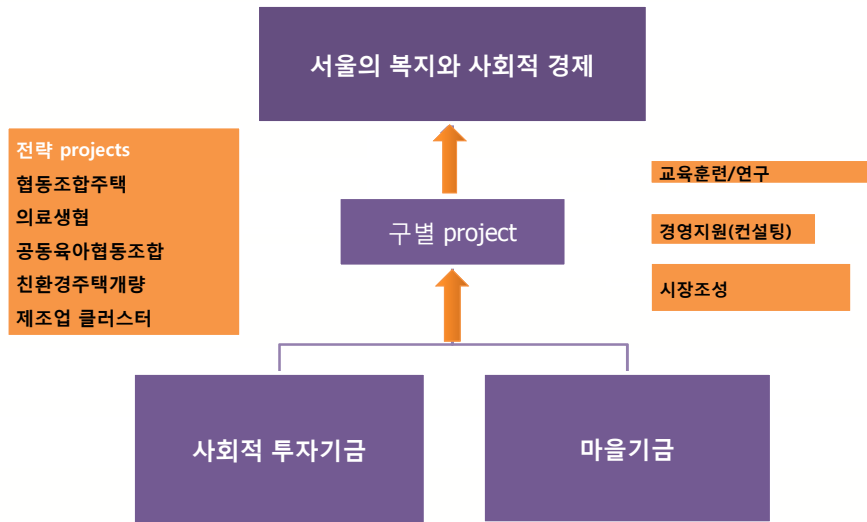
## ABM 모델에 의한 협동조합의 가능성

- 자본주의 기업의 전략 - 항상 배반 또는 WSL
- 협동조합의 전략 - 항상 협동 또는 TFT



논리적으로 협동조합은 생존 가능,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 서울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의 개념도



KPIA

### 03

#### 거시정책의 다원성

- “경제위기는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는 종종 사회정치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 체제는 기후온난화, 생물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에너지-식량 위기 등 인류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다원적 경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서울선언”)
- “의심할 나위 없이 노동, 토지 그리고 화폐는 시장경제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악마의 맷돌로부터 인간과 자연이라는 실체 그리고 기업조직을 보호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회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조잡한 허구적 체제의 결과를 지탱할 수 없다.” (“거대한 전환”, pp76-77)

KPIA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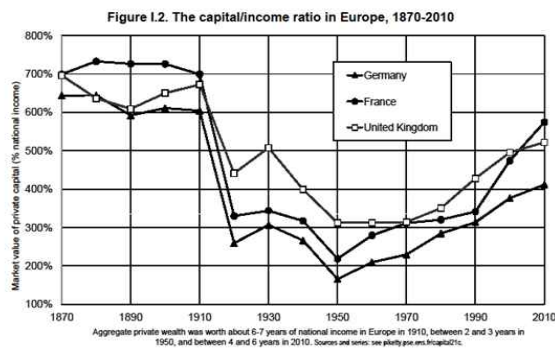
## 거시정책의 다원성

- 이종의 치명적 위기 : 불평등과 생태위기
- 허구적 상품(자연, 노동 그리고 이젠 지식)은 생산요소  
: 그것은 요소 시장과 이른바 생산함수의 문제
- 이종의 운동과 정책



## 불평등

Piketty,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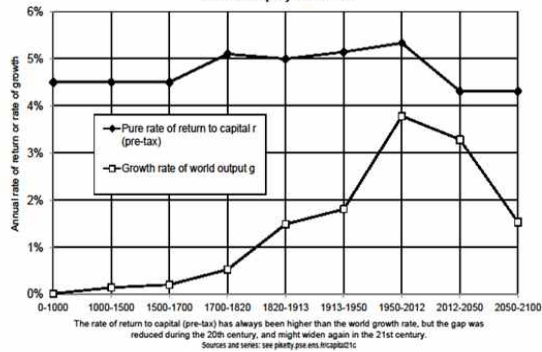
### 1945-1975가 예외적 시기

- 자본주의 황금기,  
프랑스의 “영광의 30년”,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 “Bawley의 법칙”, “쿠즈네츠의 역U자 곡선”,  
“한계생산성 분배이론)의 부정



## 함정에 빠진 피케티

Figure 10.9. Rate of return vs. growth rate at the world level, from Antiquity until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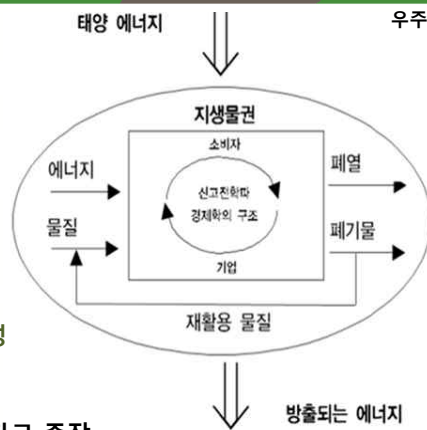
$$\alpha = r\beta (=) r \times s/g$$

**r은 왜 지속적으로 높은가(4-5%)?**

- 피케티의 답 -요소 대체탄력성이 높음( $\sigma=1.3-1.6$ )
- 신고전파 경제학자들(Summers, Rong-li)의 비판은 올바름. 피케티는 신고전파경제학 틀 내에서는 제대로 답할 수 없다.



## 생태경제모델과 논쟁



- 미래할인율 : 1.5%~90%
- 자본과, 물질 또는 에너지의 대체탄력성 : 약한 지속가능성 vs 강한 지속가능성 :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sigma$ 가 매우 크다고 주장 (하지만 피케티에 대해서는  $\sigma < 1$ 보다 적다고 주장) : 매우 지루하고 결코 끝나지 않을 논쟁, 시간만 낭비
- $\sigma$ 란 도대체 뭘까?



\* Glucina & Maumi, 2010, p 24

신고전학과  
생산함수

형식적  
경제학의 핵심

“캠브리지 자본논쟁” 재론

- 신고전파의 우화 : 생산함수의 존재와 완전 경쟁 → 한계생산성 분배
- 집계문제(두 가지 자본 개념, 자본의 malleability, 기술 전환...)
- 1) CRS 함수에서만, 2) CRS 함수라도, 집계 조건은 매우 엄격하며, 3) 근사적으로 집계한다고 해도 1)과 2)를 요구 (Fisher, 2005, p490)
- 따라서 잘 작동하는 생산함수는 존재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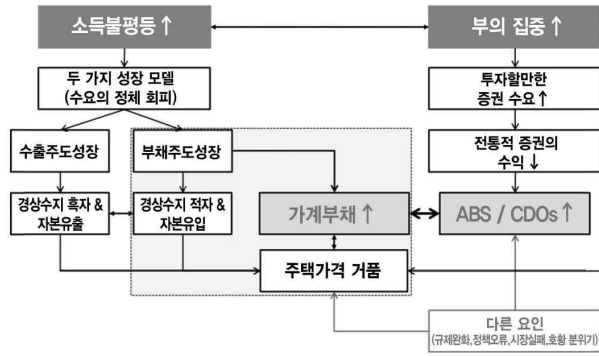


추정 문제(Shaikh, Simon, Felipe & McCombie...)

- 피케티의 제1법칙은 국민계정 항등식  $Y=rK+wL$ , 따라서 단순한 변형을 통해서  $Y=A*F(K,L)$ 의 형태로 다시 쓸 수 있으며 그것은 정확히 CD, 또는 CRS함수
- (CD의  $\alpha=rK/Y$ , 즉 자본 몫이고  $\beta$ 는 노동몫)
- “잘 작동하는 생산함수의 외양이 과연 그런 게 존재하는 지에 관해 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외양은 회계항등식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항등식이 산출물 가치와 투입물 가치를 연결하고 있다.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다” (Fisher, 490)
- 따라서 실제 사회를 들여다 보고 실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우리는 집계생산함수를 버려야 한다 → 실체경제학



- 예를 들어 우리는 포스트케인즈주의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피케티를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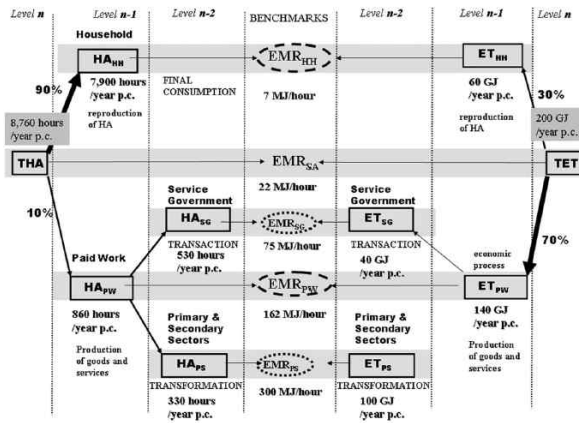


\* Goda et.al, 2014, p20

- 실제로 피케티는  $\sigma$ 가 아닌, 사회정치적 사건과 제도(제국주의, 세계대전, 대공황, 누진세율 여부)로 불평등을 설명



- 생태모델 역시 CD나 CES 함수가 아닌 단순한 에너지 투입산출로 구성



\* Sorman & Giampietro, 2013, p85

사전예방의 원칙과 다중심접근의 중요성



## 조작가능한 실천경제학의 필요성

플라니의 정신에 따라 비주류경제학을 종합

: 포스트케인즈주의 거시모델, 제도경제학, 진화경제학,  
생태경제학, 여성주의 경제학 등

- 이질적 행위자, 행위자기반모델
- 투입산출표 또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 효율시장이론의 기각, 복잡적응계로서의 금융시장
- 경로의존성, 역사가 중요하다
- 불확실성이 매우 중요해서 균형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
- 다원적 경제와 그들의 상호작용



## 대응운동을 위해 가능한 정책들

- 글로벌 재산세(Piketty)+부동산 중과세(Georgy)
- 누진소득세(Piketty)+불평등보험(Shiller), 인덱스 소득세(Ayres)
- 소득주도성장정책 - 최저임금 인상, 최고임금 도입, 노조 강화..
- 사회적 경제의 촉진 - 공동체자산형성 프로그램 등
- 토빈세와 거시건전성 규제
- 탄소세 (제본스효과를 막을 만큼 고세율로)
- 광고세에 의한 과시소비의 축소
- 생태투자 (재생가능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 교육과 보건에 대한 투자
- 일자리 나누기
-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 특히 FTA의 ISD조항, 지적재산권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

